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019년 11월 20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승구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92장 다 함 께
 기 도 권인영 집사
 성 경 봉 독 신명기 4:15~31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사랑하지 말라』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14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1월 21일(목) 기도 담당 : 구성수 집사

<신명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1월 19일(화)	신 3:23-29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시니...
11월 20일(수)	신 4:15-31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사랑하지 말라
11월 21일(목)	신 4:32-40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11월 22일(금)	신 5:1-21	산에서 내린 십계명 vs 평지에서 선포되는 십계명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20일(수)

하나님, 성큼 다가온 겨울 날씨에도 이른아침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을 미혹하여 타락의 길로 이끄는 우상에 대해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에 흠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문안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여 참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비전을 통해 참교회의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세워 주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지켜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문안의 모든 교우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